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研究

김경주*

| 目 次 |

I. 머리말

II. 연구배경

III.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검토

IV. 남한지방과의 비교와 지역적 차이

V. 맺음말

요 약

본고는 제주도 철기시대의 적갈색경질토기 기종중에서 대표적인 기종인 외반구연호의 속성분석을 통해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적갈색경질토기는 속성분석을 통해 대략 4단계의 변화과정을 상정할 수가 있다. 먼저 1단계는 초기형으로 삼양동식토기인 I·II형식, 2단계는 변화형인 III형식, 3단계는 완성형으로 광지리식토기인 IV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광지리식토기의 말기형으로 분류된다. I·II형식은 기원전 1세기경에 출현하여 기원후 1세기경에 해당되며 기원후 2~3세기경 III형식으로의 변화를 거쳐 완성형인 IV형식은 3~4세기경에 해당된다. 또한 말기형은 광지패총 7지구 2期層에서 출토된 광지리식토기의 퇴화형이 해당되며 4세기대 이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의 완성형인 외반구연호의 구경과 동최대경의 비율을 살펴보면 1:1 이상인 광지리식토기가 대표적임을 알 수가 있었다. 반면에 중도식토기는 0.7~0.8:1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연부에 최대경을 두고 있는 광지리식토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늑도-군곡리식토기는 일정한 비율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역시 또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해상이동을 통해서만 외부와의 접촉과 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남 남해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는 기존의 무문토기 전통과 말기형 송국리형토기가 결합하는 배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으며 남해안지역과의 교류와 접촉등의 복잡한 맥락속에서 그 변화과정을 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적갈색경질토기 · 삼양동식토기 · 광지리식토기

* 제주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제주도는 바다를 사이에 둔 고립된 섬으로 지리적인 여건상 한반도와 비교해 볼 때 고고학적 문화상이 유사성 보다는 상이한 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더욱욱 토기조합상이나 편년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호 비교검토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확인된 유적의 숫자가 부족한데다 조사도 미진한 편이다. 특히 粘土帶土器가 출토되는 유적은 제주도 동북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赤褐色硬質土器¹⁾ 유적은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고 있다. 즉 철기시대에 접어들면 제주도 전역이 적갈색경질토기 분포권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주도에서 출토되는 점토대토기가 대부분 자체제작 보다는 육지부 유입품임을 감안한다면 주로 사용되던 토기는 기존의 무문토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육지산 유입품으로 적갈색경질토기와 동반되는 灰色陶器도 그 수량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고 유적의 수에서도 열세인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따라서 철기시대 제주도 토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색토기에 비해 유적의 수와 유물의 출토량이 많은 적갈색경질토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에 대한 諸屬性을 검토하여 그 특징과 변천양상을 살펴보고 남한지방 적갈색경질토기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가 지니는 지역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背景

적갈색경질토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90년대 이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면서 중도식토기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도식토기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박순발은 중도식토기의 기원을 대동강유역의 신천 명사리유적에서 출토된 명사리형토기가 계기적인 변천을 한 것으로 살펴보았다²⁾. 최병현도 한강유역의 중도식토기는 요동지방에서 타날문토기의 등장으로 변질된 무문토기로서 細竹里-蓮花堡類型文化가 衛滿朝鮮期 서북한지방을 거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1)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적갈색경질토기는 경질무문토기 혹은 중도식토기등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적갈색경질토기는 환원염소성의 토기와 구분되는 토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원후 10세기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는 고내리식토기를 포함하고 있어 경질무문토기가 갖는 시대적인 배경(시대폭)과 토기제작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李淸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 學研文化社 : 71

2) 朴淳發, 1998, 「百濟 國家의 形成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47

3)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 『韓國考古學報』38 : 109~118

반면에 이상길은 중도식토기의 성립을 한강유역에서 철기의 파급과 함께 동북지방과 서북지방의 새로운 토기문화가 한강유역의 무문토기와 동화·흡수되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중도식토기를 外來系 토기문화가 1차적으로 파급되는 시기로 보았다⁴⁾. 이홍중은 미사리유적에서 단순 중도식토기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중도식토기의 성립에 대해 외래계토기의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재지계토기인 송국리형토기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하였다⁵⁾.

한편 최성락은 군곡리패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경질무문토기의 개념속에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출현시기를 기원전 1~2세기경으로 판단하고 있다⁶⁾.

이외에 안덕임은 한강유역의 토기 용량을 분석한 후 용량에 따라 食器類와 조리용기 그리고 저장용기로 분류한 연구를 제시하였다⁷⁾. 또한 오세연과 김남돈은 중도식토기를 대·중·소형으로 분류하고 소형은 식기, 중형은 조리용이나 저장용, 대형은 주로 저장용토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⁸⁾.

중도식토기의 변천양상에 대해서는 영동지방 초기철기시대의 집자리구조를 검토하여 前·中·後期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토기의 특징을 제시한 지현병의 연구가 주목된다⁹⁾.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에 대한 연구는 이백규가 광지패총 2·3지구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전기 무문토기가 출토하는 위층에서 金海式打捺文土器와 동반되며 기원 1세기경으로 추정하여 적갈색경질토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⁰⁾. 이후 5차례의 광지패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창규는 철기시대 제주도의 대표적인 적갈색경질토기로 광지리식토기를 설정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적갈색경질토기가 광지리식토기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郭支里式土器¹¹⁾의 원형을 제주도 재래의 무문토기 바탕위에 松菊里式土器의 말기형, 혹은 郡谷里-勒島式土器등 남해안 지방의 영향을 받아 광지리식토기가 복합적으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시기를 기원전 1세기경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기원전 1세기경 광지리식토기의 초기형이 확인되지 않아 그 기원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¹²⁾.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무문토기 제작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기종구성과 기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무문토기의 기종은 주로 심발형의 직립구연토기가 대다수인데

4) 李相吉, 1992, 「漢江流域 鐵器時代 土器編年-中島式土器를 中心으로」, 慶北大碩士論文: 52~53

5) 李弘鍾, 1996, 「청동기시대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47~50

6) 崔盛洛, 1993,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全南地方을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288

7) 安德任, 1985, 「漢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집터와 土器를 中心으로」, 漢陽大碩士學位論文

8) 오세연, 1995, 「중부지방 철기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주거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논문
金南純, 1996, 「우리나라 初期鐵器時代 中部地方의 遺蹟 研究-屯內遺蹟을 中心으로」, 江原大碩士論文

9) 池賢柄, 1995, 「江原嶺東地方의 初期鐵器時代-집자리유적을 중심으로」, 第13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要旨: 59

10) 李白圭, 1979, 「濟州道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濟州道の 考古學的 調查研究1」, 『考古學』, 5·6合輯: 150~156

11) 李清圭는 『濟州島 考古學 研究』에서 郭支1式土器와 郭支2式土器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1995년도에 高內里遺蹟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는 각각 郭支里式土器와 高內里式土器로 명명하여 사용되고 있다.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12)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 學研文化社: 172

비해 적갈색경질토기는 대체로 구연부가 외반되어 지고 구경이 동최대경 보다 넓은 외반구연호가 주요 기종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 기종중에서 외반구연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괘지패총 5지구에서 출토된 유물중 보고서에 실린 총 78점의 토기 중에 외반구연호가 60점으로 기종구성상 7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 외반구연호가 적갈색경질토기의 중심기종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기종은 그 수량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비교검토가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으로 삼고있는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는 모두 157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Ⅲ.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檢討

1. 器種

제주도에서 확인된 철기시대 적갈색경질토기의 기종을 살펴보면 외반구연호, 발형토기, 파수부토기, 원발형토기, 소형토기, 원통형토기, 뚜껑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된 삼양동유적에서 파수부토기, 대부분 발등 기존의 기종과 또는 기형을 달리하는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주목되어 진다. 현재까지 확인된 적갈색경질토기의 기종은 모두 8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외반구연호

외반구연호는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이다. 괘지패총에서 확인되는 외반구연호는 구경이 동체부에 비해 매우 넓고 동체부 상단에서 강하게 외반되면서 길게 이어지는 기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삼양동¹³⁾에서 주로 확인되는 외반구연호는 구연부의 외반정도가 괘지패총 출토 토기에 비해 약하여 직립구연에 가까운 기형도 있고 또한 외반길이가 짧으며 어깨부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 발형토기

발형토기는 적갈색경질토기 중에서 중·대형의 외반구연호에 비해 소형의 용기로서는 대표적인 기종이다. 발형토기는 크기가 15cm 이상인 심발형토기와 15cm 이하인 발형토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심발형토기는 대부분 삼양동에서 출토되었는데 저부에서 약간 축약되어져 동체부와 연결되어 외반되어 지다가 동체부 상단에서 다시 내반되어 지는 형태와 동체부 상단에서 내반되어지다가 구순부에서 다시 살짝 외반되어

13)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는 괘지리식토기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에 삼양동유적과 종달리패총 등에서 전형적인 괘지리식토기 외반구연호와는 그 기형과 제작수법상에서 형태를 달리하는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토기를 일단은 적갈색경질토기의 하위형식인 괘지리식토기와 구분하여 三陽洞式土器로 명명하고자 한다.

지는 기형이 존재한다.

3) 파수부토기

파수부토기는 삼양동유적의 출토품을 보면 파수가 양쪽에 각각 하나씩 두 개가 달려있고 구연부가 외반되어 지며 최대경이 동체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체상단에 파수가 달려 있는 기형과 직립구연에 최대경이 동체중앙부에 있어 작은 단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기형이 있다. 광지패총에서 확인되는 토기는 파수가 달린 맥주컵형의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토기의 높이와 구경이 비슷하다.

4) 원뿔형토기

원뿔형토기는 '▽'자 모양의 기형으로 출토품의 대부분이 구연부가 파손된채로 출토되고 있어서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구연부가 직립하는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비교적 미세한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두께도 대부분 1.0cm 미만으로 제작되었다.

5) 대부발

대부발은 현재까지 삼양동유적 출토품 2점이 유일하다. 군곡리 Ⅲ·Ⅳ기층에서 출토되는 臺附土器, 그리고 늑도Ⅲ식에 해당하는 台附鉢과 유사하다. 태토보강제는 매우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사용하였고 두께가 매우 두터우며 정면수법에서도 손누름수법이 강한 것으로 볼 때 적갈색경질토기의 제작수법과 동일하다.

6) 소형토기

소형토기는 대체로 잔이나 소형컵 형태로 크기는 8cm 미만이 대부분이며 기벽의 두께가 비교적 균일한 편이다. 저부의 형태에 따라 원저와 평저로 나누어 진다. 또한 기벽이 대체로 두텁고 정면수법이 불량한 것이 대부분이며 手捏法으로 제작된 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7) 원통형토기

원통형토기는 광지패총 5지구에서 2점이 출토한 예가 유일하며 완형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기형과 특징을 알 수 없지만 세장한 형태의 원통형토기로 추정되고 있다. 기벽의 두께는 0.5cm로 비교적 얇고 태토보강제로 세사립을 사용한 것을 볼 때 광지리식토기 제작수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8) 뚜껑

뚜껑토기는 광지패총, 금성패총등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고 다른 유적에서는 확인되는 예가 드물다. 뚜껑

의 뒷개 부분은 턱이 없이 평평한 형태가 대부분이며 상면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고리형과 꼭지형, 손잡이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뚜껑의 지름은 대체로 17~20cm 내외가 대부분이다.

2. 屬性檢討 및 型式分類

본고에서의 검토대상으로 삼은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 중 제주도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157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외반구연호의 출토유적과 갯수를 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유적명	내용	유적의 성격	외반구연호	출토위치
용담동유적		생활유적	2	지표수습
삼양동유적		마을유적	54	주거지
용담동 분묘유적		분묘유적	3	옹관묘
곽지패총 2지구		패총	4	패총
곽지패총 5지구		패총	54	패총
금성패총		패총	16	석축유구, 패총
김녕케내기굴		동굴유적	17	주거지
종달리패총		패총	4	패총
중문 베탯내유적		생활유적	2	수혈유구
동북리유적		생활유적	1	지표수습
계			157	

표1.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의 출토유적과 갯수

1) 屬性檢討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의 속성검토 내용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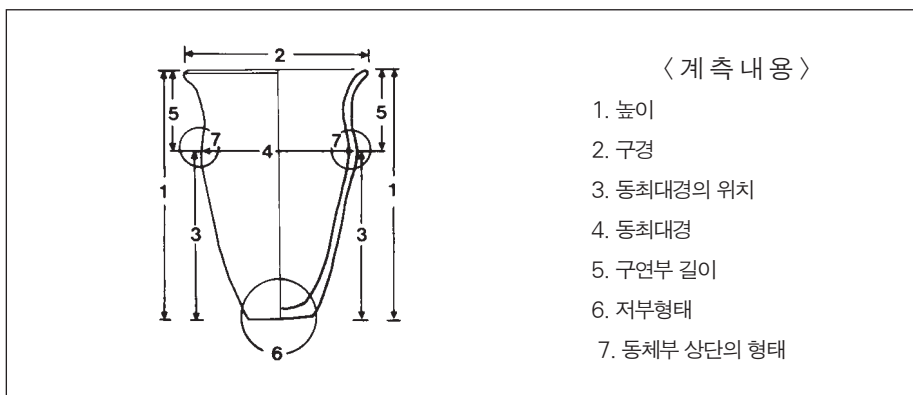


그림1.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 속성검토 도식

(1) 전체 최대경의 위치

전체 최대경의 위치(이하 최대경위치)는 토기의 가장 넓은 지름을 갖고 있는 위치를 말하며 동최대경의 길이를 '1'로 설정하고 동체부 최대경에 대한 구경의 비율로 환산하였다. 표2와 그림2에서 보면 구경과 동 최대경의 비율이 0.9:1~1.1:1에서 각각 26.1%, 33.1%, 24.9%로 최대 군집도를 보이고 있다. 최대경의 비율에 따라 0.9:1 이하인 경우는 속성 A, 1:1 이상인 경우는 속성 B로 분류하였다.

순번	최대경 비율	갯수	%
1	0.7 : 1	8	5.1
2	0.8 : 1	6	3.8
3	0.9 : 1	41	26.1
4	1.0 : 1	52	33.1
5	1.1 : 1	39	24.9
6	1.2 : 1	10	6.4
7	1.3 : 1	1	0.6
합계	—	157	100

표2. 최대경위치 속성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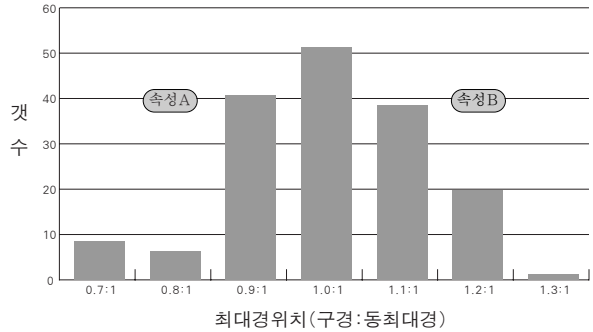


그림2. 최대경위치 분포도

(2) 동체부 최대경의 위치

동체부 최대경의 위치(이하 동최대경 위치)는 동체부의 지름이 가장 넓은 곳이 위치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토기의 전체 높이를 '100'으로 설정하고 저부 바닥에서 동최대경이 위치하는 지점까지의 높이를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토기의 전체높이를 '100'으로 설정하면 대략 60 이하는 동최대경의 위치가 동체부 중앙에 위치하며 그 이상인 것은 동체부 중앙상단 및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60'을 정점으로 동체중앙부에 위치하는 속성 A, 동체 상단부에 위치하는 속성 B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순번	동최대경 위치	갯수	%
1	60이하(속성A)	34	21.7
2	61이상(속성B)	123	78.3
합계	-----	157	100

표3. 동최대경의 위치 속성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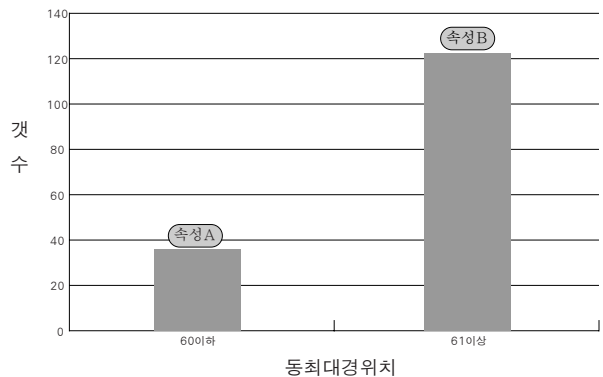


그림3. 동최대경위치 분포도

표3과 그림3에서 보면 61이상으로 동최대경의 위치가 동체부 상단에 위치하는 속성이 157점중에 123점이며 78.3%를 차지하고 있다.

(3) 동체 상단부의 형태

동체 상단부의 형태는 동체 상단부에서 구연부로 연결되는 어깨부의 형태를 말하며 어깨부가 뚜렷하게 각이 쳐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속성 A, 어깨부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고 동체부에서 동그렇게 구연부로 올라가는 형태는 속성 B로 분류하였다. 어깨부가 강하게 각이 지는 경우는 대체로 동최대경이 동체부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구연부가 강하게 외반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전자에 비해 비교적 외반정도가 약하고 동최대경이 동체부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저부 형태

저부의 형태는 크게 동체부에서 내려오다가 저부와 접합되는 면에서 축약되어져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와 동체부에서 막바로 축약됨이 없이 밋밋하게 내려오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속성 A, 후자를 속성 B로 분류하였다.

2) 型式分類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는 구연부가 외반되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반정도와 외반길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지는 것은 토기의 최대경 위치에서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반구연호를 분석하는 1차적인 속성으로 최대경의 위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제속성 중에서 최대경의 위치와 동최대경의 위치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속 성	동최대경 속성A	동최대경 속성B	합 계	비 고
최대경 속성A	20(12.7%)	35(22.3%)	55(35.0%)	
최대경 속성B	16(10.2%)	86(54.8%)	102(65.0%)	
합 계	36(22.9%)	121(77.1%)	157(100%)	

표4. 최대경위치 · 동최대경위치 속성의 상관 관계

표4에서 보면 최대경의 위치가 속성 B인 기형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동체부 최대경의 위치가 속성 B

인 기형이 77.1%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최대경의 위치와 동체부 최대경의 위치가 모두 B속성인 경우에 157점 중에서 86점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경과 동최대경의 속성이 각각 A와 B인 경우는 35점으로 22.3%이며 나머지는 모두 15%이하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전체 최대경 속성 B와 동체부 최대경 속성 B인 토기가 제주도 철기시대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토기의 속성임을 알 수가 있다.

표4를 바탕으로 최대경의 위치와 동최대경의 위치가 모두 속성 A인 기형을 I 형식, 최대경의 위치가 속성 A이고 동최대경은 속성 B인 경우는 II 형식, 최대경의 위치는 속성 B이고 동최대경의 위치가 속성 A인 경우는 III 형식, 최대경과 동최대경의 위치가 모두 속성 B인 경우는 IV 형식으로 모두 4개의 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분류된 형식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I 형식

I 형식은 토기의 최대경이 동체부에 위치하고 있고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기형이다. I 형식은 저부가 축약되었거나 축약흔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표4에서 보면 전체 157점 중에서 20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다.

(2) II 형식

II 형식은 최대경이 동체부에 위치하고 동최대경은 동체부 상단에 위치하는 기형이다. 이 형식 역시 저부의 축약흔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표4에서 보면 전체 157점 중에서 35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

(3) III 형식

III 형식은 토기의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최대경의 위치는 동체 중앙부에 위치하는 형식이다. 이 형식에는 저부의 축약흔이 소멸되고 있어서 기존의 무문토기 제작수법을 계승하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아 무문토기의 제작수법에서 탈피하여 적갈색경질토기의 자체적인 변화단계에 있는 형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4에서 보면 전체 157점 중에서 16점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4) IV 형식

IV 형식은 최대경과 동최대경의 위치 속성이 모두 B속성을 갖는 형식으로 최대경은 구연부에 위치하고 동최대경은 동체부상단에 위치하며 저부의 형태는 축약흔이 대부분 사라지고 확인되지 않는 형식이다. 표4에서 보면 전체 157점 중에서 86점으로 54.8%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型式變遷과 編年

1) 型式變遷

여기서는 앞서 분류한 4개의 형식을 바탕으로 각 유적별 점유율과 형식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5를 보면 I 형식은 용담동 분묘유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IV형식은 중문 배릿내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II·III형식은 삼양동유적, 김녕 궤내기굴, 금성패총에서만 동시에 확인되고 있고 다른 유적에서는 2개의 형식 모두가 동시에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용담동 분묘유적은 III·IV형식만이 출토되었고 용담동유적과 중문 배릿내유적에서는 I·II형식만이 확인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유적명	I 형식		II 형식		III 형식		IV 형식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용담동유적	1	0.6	1	0.6	0	0	0	0
동북리유적	1	0.6	0	0	0	0	0	0
중문 배릿내유적	2	1.3	0	0	0	0	0	0
삼양동유적	7	4.5	28	17.9	2	1.3	17	10.8
종달리패총	1	0.6	0	0	0	0	3	1.9
김녕 궤내기굴	2	1.3	1	0.6	2	1.3	12	7.6
금성패총	2	1.3	3	1.9	2	1.3	9	5.7
곽지패총 5지구	3	1.9	0	0	9	5.7	42	26.9
곽지패총 2지구	1	0.6	2	1.3	0	0	1	0.6
용담동 분묘유적	0	0	0	0	1	0.6	2	1.3
합 계	20	12.7	35	22.3	16	10.2	86	54.8

표5. 각 형식의 유적별 출토현황

또한 각 유적별로 형식별 개체수를 보면 I 형식은 삼양동유적이 전체 157점 중에서 7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곽지패총 5지구에서는 3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삼양동유적만을 놓고 보면 54점 중에서 7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고 곽지패총 5지구의 경우에는 54점 중에서 3점으로 5.5%에 불과하다.

II 형식은 삼양동유적이 157점 중에서 28점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금성패총이 3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삼양동유적만을 대상으로 보면 54점 중에서 28점으로 51.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성패총은 16점 중에서 3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어서 II 형식이 삼양동유적에서 출토

되는 적갈색경질토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토기임을 알 수가 있다.

Ⅲ형식은 광지패총 5지구가 전체 157점 중에서 9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삼양동, 김녕 퀘내기굴, 금성패총 등에서 각각 2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유적별 출토유물의 비율을 보면 광지패총 5지구는 총 54점 중에서 9점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고 금성패총은 16점 중에서 2점으로 12.5%, 김녕 퀘내기굴은 17점 중에서 2점으로 11.7%, 삼양동유적은 54점 중에서 2점으로 3.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Ⅲ형식은 삼양동유적에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유적간에는 서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Ⅳ형식을 보면 광지패총 5지구가 전체 157점 중에서 42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고 김녕 퀘내기굴은 12점으로 7.6%, 금성패총은 9점으로 5.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유적별 출토유물의 비율을 보면 광지패총 5지구는 총 54점 중에서 42점으로 77.7%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김녕 퀘내기굴은 17점 중에서 12점으로 70.5%, 금성패총은 16점 중에서 9점으로 56.2%, 삼양동유적은 54점 중에서 17점으로 31.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Ⅳ형식은 광지패총 5지구와 김녕 퀘내기굴유적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던 토기의 기형임을 알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Ⅰ·Ⅱ형식은 삼양동유적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Ⅲ형식은 삼양동유적을 제외한 광지패총 5지구, 금성패총, 김녕 퀘내기굴 등에서 서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Ⅳ형식은 광지패총 5지구와 김녕 퀘내기굴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각 유적별로 빈도수에 따른 변화를 보면 삼양동유적은 Ⅰ형식에 비해 Ⅱ형식으로 갈수록 빈도수가 높고 다시 Ⅲ형식에서 줄어들다가 Ⅳ형식에서 빈도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광지패총 5지구는 Ⅰ·Ⅱ형식 토기의 빈도수가 매우 낮는데 반해 Ⅲ형식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Ⅳ형식에서는 매우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녕 퀘내기굴, 금성패총등의 유적에서도 Ⅰ·Ⅱ·Ⅲ형식 토기의 빈도수가 낮은 반면에 Ⅳ형식의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광지패총 5지구, 김녕 퀘내기굴, 금성패총등은 토기의 형식변화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삼양동유적은 이에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Ⅱ·Ⅲ형식의 경우를 보면 삼양동유적에서는 Ⅱ형식이 28점인 반면 광지패총 5지구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Ⅲ형식은 삼양동유적에서 2점이 광지패총 5지구에서는 9점으로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매우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유적은 그 비율이 더욱더 낮은 편이다. 즉 Ⅲ형식은 전형적인 형식이라기 보다는 Ⅳ형식으로의 변화과정에 있는 형식이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던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토기의 제작수법과 동체 상단부의 형태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삼양동유적의 경우 제작수법이 양호한 정면처리수법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동체 상단부의 형태에 있어서도 어깨부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는 속성B가 대부분이다. 이와 반대로 광지패총 5지구의 외반구연호는 정면수법이 양호한

토기가 원형토기 31점 중에서 26점으로 83.9%의 높은 정면수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체 상단부의 형태도 역시 어깨부가 뚜렷하고 강하게 외반되는 경우가 58%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외반구연호는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면이 매끄럽지 못한 반면 광지패총 5지구 출토 외반구연호는 접합후 평탄한 도구를 사용하여 돌아가면서 눌러 기벽을 정리한 토기가 대부분이다.

특히 Ⅳ형식은 삼양동, 종달리패총 등에서도 출토되었지만 구연부의 외반길이가 8cm 이상으로 매우 길어지는 토기는 광지패총 5지구와 김녕 궤내기굴에서만 확인되는 기형으로 삼양동유적에서는 단 1점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양 유적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대경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삼양동유적에서는 최대경이 동체부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구경과 동최대경이 비슷한 기형도 그 개체수가 적지는 않다. 따라서 삼양동유적에서 주를 차지하는 Ⅰ·Ⅱ형식에서 Ⅲ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중에 구경과 동최대경이 비슷한 기형으로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구연부에 최대경을 두고 동최대경이 동체부에 위치하는 Ⅲ형식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인 Ⅳ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지패총 5지구의 출토유물을 보면 Ⅳ형식이 7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Ⅱ형식은 1점도 출토되지 않았고 Ⅲ형식은 총 54점 중에서 9점으로 16.7%에 불과하여 그 출토량이 많지가 않다는 점을 보더라도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로의 변화과정에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의 표4에서 보면 광지패총 5지구에서는 Ⅱ형식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Ⅲ형식 단계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삼양동유적에서는 Ⅱ형식의 토기가 51.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서로 상반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광지패총 5지구에서는 최대경의 위치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후인 Ⅲ형식 단계부터 출현하고 있으며 삼양동유적에서는 계속적으로 성행하던 최대경을 동체부에 두는 형식이 삼양동유적의 말기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삼양동식토기의 말기형으로 생각되는 Ⅱ·Ⅲ형식에 후행하는 Ⅲ형식의 말기 단계 내지는 Ⅳ형식의 초기 단계에는 이미 광지패총 5지구와 용담동 분묘유적등에서 적갈색경질토기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진전된 광지리식토기의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2) 編年

여기서는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절대연대 자료와 동반유물을 검토하고 남해안지역 유적과의 교차편년을 통해 적갈색경질토기의 편년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절대연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면 삼양동, 종달리패총, 용담동분묘에서 출토된 청동유물, 철기유물, 환옥등을 들 수가 있다. 먼저 삼양동 Ⅰ구역 27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청동촉은 북한 낙랑지역의 정백동 1호분 등에서 다수가 확인되고 있으며 단면형태가 정삼각형을 띠며 경부에는 철심을 부착하는 방식도 동일

하다¹⁴⁾. 그리고 I 구역 1호주거지에서 출토된 동검편의 경우는 기원전 1세기 후반~기원후 1세기 후반경 일본 야요이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II-2구역 6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중국계 환옥 역시 북한 낙랑구역의 정오동 1호분에서 출토된 환옥과 유사하며 그 실연대는『조선유적유물도감』에 따르면 기원후 50년경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삼양동유적의 중심시기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대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와 회색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점은 삼양동유적의 하한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종달리패총 제2문화층에서 출토된 삼각형철촉은 보고자에 따르면 조양동, 노포동, 양동리 등에서 출토되는 철촉보다는 이른 시기인 기원후 1세기 초엽~1세기말로 편년하고 있다. 또한 용담동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철제무기류는 後漢代의 유물로 노포동 33호, 다호리 30호, 양동리유적¹⁵⁾ 등과 비교해 볼 때 기원후 2세기대를 중심연대로 보고 있다. 또한 삼각형철촉이 출토된 종달리패총 제2문화층에서는 점토대토기와 함께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와는 그 기형을 달리하는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삼양동유적의 경우에도 I 구역 1호와 27호주거지에서 적갈색경질토기 I·II형식의 토기가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갈색경질토기 I·II형식이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인 IV형식에 앞서는 형식임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또한 삼양동 II-2구역 6호주거지에서는 III형식에 가까운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용담동 분묘에서는 III·IV형식인 광지리식토기가 출토되는 것을 보더라도 절대연대 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지패총 5지구에서는 다량의 광지리식토기와 함께 해남 군곡리패총에서 출토된 경질찰문토기가 동반 출토되어 광지패총 5지구의 연대를 군곡리패총의 IV기층과 평행하는 기원후 1~2세기경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⁶⁾.

한편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직립구연무문토기와 외반구연토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직립구연토기가 외반구연토기 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형식임을 I 구역 13·14호주거지를 비롯하여 여러 유구의 중복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삼양동 I 구역 13·14호주거지의 예를 보면 조사결과 14호주거지가 13호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3호주거지에서는 단면 원형의 점토대토기와 함께 직립구연토기가 동반 출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14호주거지에서는 구연부 바로 아래에서 살짝 외반되어지는 기형으로 적갈색경질토기 II형식에 해당하는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직립구연토기와 동반하는 단면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적어도 외반구연토기가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군곡

14) 『조선유적유물도감』에 따르면 정백동 1호분은 기원전 2세기말~기원전 1세기초로 편년하고 있다.

15) 김해 양동리유적 212호, 313호에서 출토된 철검의 손잡이에는 소용돌이 문양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데 용담동 북쪽묘역의 석곽묘에서 출토된 철기세트에서 이와 비슷한 와선형의 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양동리 212호, 313호는 토광목곽묘 단계로 보고자에 따르면 기원후 2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되고 있어 광지리식토기의 중심연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林孝澤의, 2000, 『金海良洞里古墳文化』, 東義大學校博物館

16)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 學研文化社 : 171

리패층에서 출토된 A I 식과 동일한 기형의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삼양동유적에서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 II 형식과 동반 출토하고 있다. 군곡리에서 A I 식이 II · III · IV기층에 걸쳐 있으나 주로 II · III기층에 밀집되어 출토되고 있는데 II · III기층은 기원전 2세기 말~기원후 1세기 후반경으로 편년하고 있다¹⁷⁾. 따라서 II 형식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의 연대는 최소한 기원전 1세기경에는 위치지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종달리패층에서는 늑도 I d식과 유사한 기형과 함께 II 형식 적갈색경질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있어서 역시 광지리식토기 보다 앞서는 유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김녕 퀘내기굴은 군곡리패층의 A I, A II 형식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적갈색경질토기 I · II 형식과 함께 IV형식층에 동체부 상단에서 강하게 내반되다가 다시 길게 외반되어지는 기형이 출토되고 있어 광지패층 5지구의 이전시기 부터 광지 5지구와 평행하는 시기에도 유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종달리패층은 삼양동유적과 시기적으로 평행하거나 다소 늦은 것으로 보이며 김녕 퀘내기굴유적은 삼양동과 종달리패층 보다는 후행하면서 광지패층 5지구 보다 다소 앞서거나 평행하는 시기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녕 묘산봉 동굴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는 군곡리패층 B III 식과 유사하며 적갈색경질토기 IV형식과 동반되고 있는데 최성락은 군곡리패층에서 B III 식의 출토량이 많지가 않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A III 식과 평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¹⁸⁾. 즉 A III 식은 군곡리패층 III · IV기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하고 있어 군곡리패층의 연대를 수용하면 기원후 1세기 후반~2세기 중엽경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김녕 묘산봉동굴은 광지패층 5지구 보다 다소 빠르거나 평행하는 기원후 2세기대가 중심연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녕 묘산봉동굴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가 퀘내기굴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 보다 후행하는 형식이고 삼양동 I 구역 12호주거지에서 이와 유사한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삼양동에서 이미 IV형식이 출현하고 있지만 광지패층 5지구에서 출토된 IV형식 중에 구연부가 길게 외반되는 형식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광지패층 5지구는 기원후 3~4세기경까지 더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형식분류에 의하면 중문 베릿내유적과 용담동유적은 삼양동유적과 평행한 시기로 추정되며 용담동분묘 출토 용관은 모두 III 형식과 IV형식으로 분류되고 있어 광지패층 5지구의 중심시기와 평행하는 시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광지패층 2지구는 광지패층 5지구 보다는 다소 앞서거나 평행한 시기로 생각되고 금성패층은 I ~ IV형식이 모두 확인되고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는 결국 1~4단계의 계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단계는 I · II 형식이 주로 출토되는 단계로 삼양동식토기가 이에 해당하며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단계는 III 형식이 출토되는 과도기로 기원후 2~3세기경으로,

17) 崔盛洛, 1993,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全南地方을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 232

18) 崔盛洛, 1993,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全南地方을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 142

3단계는 Ⅳ형식이 주로 출토되는 완성기로 광지리식토기가 이에 해당되며 기원후 3~4세기경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4단계는 광지리식토기의 말기형이 출현하는 광지패총 7지구 2期層¹⁹⁾이 해당되는데 기원후 4세기대 이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Ⅳ. 南韓地方과의 比較와 地域的 差異

1. 南韓地方과의 比較

이 장에서는 중부지방과 남해안지역의 적갈색경질토기를 대상으로 토기의 높이와 최대경의 위치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하도록 하겠다. 비교대상은 중도식토기와 군곡리식토기, 늑도식토기 중 외반구연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도식토기는 13개의 유적에서 총 176점, 군곡리패총은 21점 그리고 늑도주거지에서는 홀구연의 외반구연호 7점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는 광지패총 5지구 출토 광지리식토기 외반구연호 중 31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1) 中島式土器와의 比較

중도식토기는 높이가 57cm 이상으로 예외적인 토기가 확인된 가평리유적과 중도유적에서 각각 1점, 둔내리유적에서 3점을 제외한 171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중도식토기의 높이를 개체수에 따라 살펴보면 표6, 그림4와 같고 광지리식 토기는 표7, 그림5에서 보는 것과 같다.

순번	높이(cm)	갯수	%
1	20미만	57	33.3
2	20~30	72	42.1
3	31이상	42	24.6
합계	----	171	100

표6. 중도식토기 높이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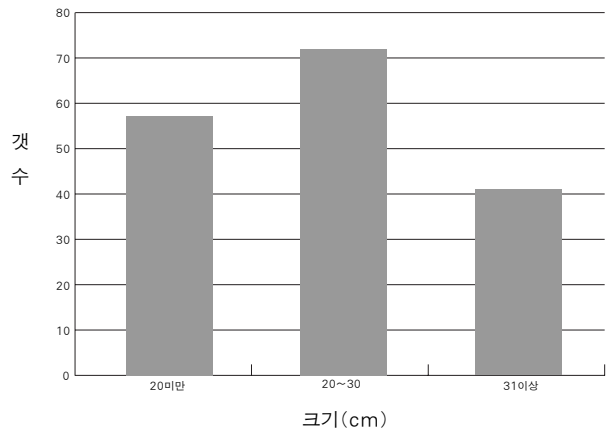


그림4. 중도식토기 높이 분포도

19) 광지패총 7지구 2기층은 광지리식토기와 고내리식토기의 중간 퇴적층으로 광지리식토기 말기형태가 확인되었다. 康昌和·金慶柱, 1996, 「濟州郭支貝塚7地區의 土器와 層位에 관한 考察」, 『古文化』48 : 160

순번	높이(cm)	갯수	%
1	20미만	6	19.4
2	20~30	19	61.2
3	31이상	6	19.4
합계	----	31	100

표6. 팍지리식토기 높이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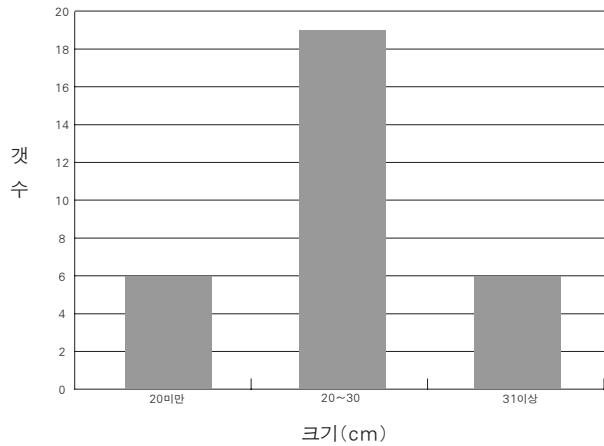


그림5. 팍지리식토기 높이 분포도

표6·7과 그림 4·5에서 보면 중형토기인 20~30cm에 해당되는 토기가 중도식토기에서는 전체 171점 중에 72점으로 42.1%를 차지하고 있고 팍지리식 토기는 31점 중에 19점으로 61.2%를 차지하고 있어 양 지역 모두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동시기의 양 지역간에 토기의 기능 또는 용도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중도식토기에서는 20cm 미만인 소형토기의 제작비율이 높고 팍지리식토기는 20cm 미만의 소형과 31cm 이상의 대형토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두 지역간에 서로 토기제작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각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생활환경, 생활방식상의 일정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번	비율	갯수	%
1	0.5:1	10	5.7
2	0.6:1	22	12.6
3	0.7:1	52	29.7
4	0.8:1	57	32.6
5	0.9:1	24	13.7
6	1.0:1	9	5.1
7	1.1:1	1	0.6
합계	—	175	100

표8. 중도식토기 최대경위치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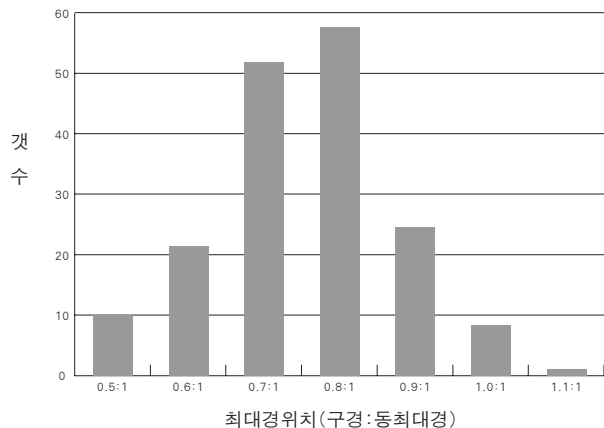


그림6. 중도식토기 최대경위치 분포도

표8과 그림6은 중도식토기의 최대경이 위치하는 비율을 도표화 하여 분포도를 작성한 것이다. 중도식토기 총 176점 중에서 대전 구성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1점이 1.5:1의 비율로 제작되었는데 보편적인 수치와는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총 175점에 대한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분포도에서 보면 구경:동최대경의 비율이 0.8:1이 총 175점 중에 57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0.7:1이 총 175점 중에 52점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0.7:1과 0.8:1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0.7:1과 0.8:1을 합치면 총 175점중에서 109점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중도식토기의 최대경은 주로 0.7:1과 0.8:1의 비율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1.0:1 이상은 총 175점 중에 10점으로 5.7%에 불과해 중도식토기의 기본적인 제작비율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제주도 철기시대의 적갈색경질토기인 팍지리식토기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9와 그림7에서 보는 것처럼 팍지리패총 5지구 출토 팍지리식토기는 1.1:1이 전체 31점 중에서 14점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고 1.0:1은 전체 31점 중에서 11점으로 35.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0:1과 1.1:1을 합하면 25점으로 80.7%에 달하여 팍지리식토기는 대부분이 1.0:1과 1.1:1의 비율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도식토기와 비교해 볼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1.2:1에 이르는 토기도 5점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제주도 철기시대 적갈색경질토기의 완성기에는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는 토기를 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토기 제작스타일임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번	비율	갯수	%
1	0.9:1	1	3.2
2	1.0:1	11	35.5
3	1.1:1	14	45.2
4	1.2:1	5	16.1
합계	—	31	100

표9. 팍지리식토기 최대경위치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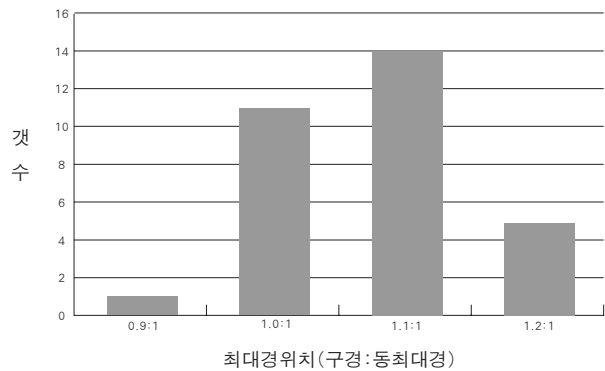


그림7. 팍지리식토기 최대경위치 분포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팍지리식토기는 동체부 최대경이 주로 동체 상단부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도식토기는 주로 동체의 중앙부에 형성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도식토기

중에 동최대경이 동체부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는 천안 장산리 1호주거지, 증원 하천리 F지구 1·2호주거지, 미사리 A21호 소형유구(송실대), 미사리 A지구 소형구덩이 유구 6호(한양대) 등에서 출토한 예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도식토기가 동체부 상단에 동최대경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어깨부에서 강하게 각이져 외반하는 형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하천리 F지구 1·2호주거지 출토품이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동체부가 세장한 형태를 이루면서 동최대경이 동체부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금강유역과 남한강 하류인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중도식토기 분포권내에서 또하나의 지역색을 보여주는 특징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최대경의 위치는 중서부지역인 금강유역에 위치한 천안 장산리유적과 대전 구성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만이 동최대경과 구경의 비율이 1.0:1로 비슷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0.9:1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동최대경이 구경에 비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강원지역의 경우는 6개의 유적에서 출토된 중도식토기의 동최대경과 구경의 비율이 0.8:1이하에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최대경과 구경의 비율만으로 본다면 금강유역에 위치한 중서부 지역의 장산리와 구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중도식토기가 광지리식토기와 형태적인 속성상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광지리식토기 중에서는 동체 상단부의 어깨부위에서 길게 외반하고 있는 기형이 있는데 이러한 기형은 중도식토기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으로 광지리식토기만의 독특한 기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결국 광지리식토기는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의 완성기에 제작된 토기로 광지패총 5지구 단계에 이르면 이미 제주도화한 제주도식의 토기가 완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광지리식토기는 구경이 저경에 비해 2:1정도로 넓으며 심지어는 3:1이 넘는 것도 있을 정도로 구경에 비해 저부가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중도식토기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토기가 많다. 하지만 금강유역과 남한강 하류의 천안 장산리, 대전 구성동, 증원 하천리 F지구에서 확인되는 기형들 중에서는 역시 구경과 저경의 대비가 2:1 이상인 토기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양 지역간의 적갈색경질토기가 동일한 변화과정에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철기시대 후기로 가면 토기의 기형이 세장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중도식토기와 광지리식토기는 기형과 제작수법 상에서 볼 때 공통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郡谷里式土器와의 比較

군곡리패총은 기원전 3세기경에서 기원후 3세기경에 걸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철기시대의 층으로 알려진 II ~ V기층까지에서 출토되는 외반구연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순번	높이(cm)	갯수	%
1	20미만	11	52.4
2	20~30	5	23.8
3	31이상	5	23.8
합계	----	21	100

표10. 군곡리식토기 높이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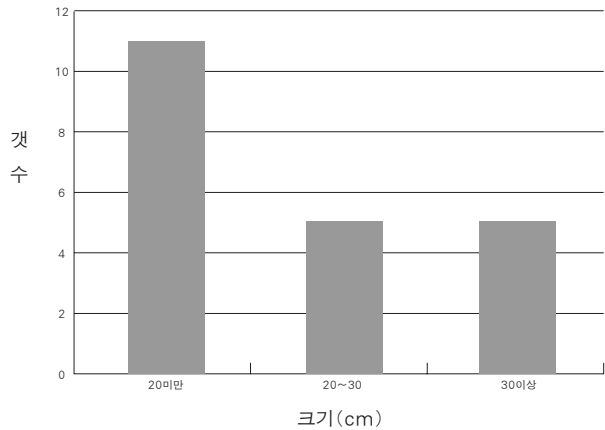


그림8. 군곡리식토기 높이 분포도

표10과 그림8에서 보면 군곡리패총에서 출토된 토기는 20cm미만의 비교적 소형토기가 전체 21점 중에서 11점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중도식토기와 꺾지리식토기 그리고 후술할 늑도식토기가 20~30cm 사이에 위치하는 토기의 점유율이 높는데 반해 비교가 된다. 이러한 토기의 높이 차이는 역시 앞에서 서술했지만 지역적인 생활환경과 생활방식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군곡리패총 출토 군곡리식 경질무문토기는 다른 지역 토기와의 비교에서 보면 그 기능과 용도상에서 매우 다른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11과 그림9에서 보면 최대경의 비율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군곡리식토기는 그 기능과 용도상에서 매우 다양한 토기가 제작되었고 제작방식에 있어서도 토기의 높이, 기형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꺾지리식토기와 비교해 볼 때 토기의 기형이 단일화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최대경의 위치는 대체로 0.7:1과 1.0:1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0.7:1의 비율과 1.0:1의 비율로 제작된 토기의 2가지 종류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제작비율임을 알 수가 있다. 군곡리패총에서는 대체로 토기의 높이가 20cm 미만인 비교적 소형토기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외반정도에 있어서도 중도식토기와 꺾지리식토기 처럼 ‘자형의 강한 외반현상이 일반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경질무문토기의 저부가 축약흔이 사라지고 있는 점에서는 꺾지리식토기의 변화양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

순번	비율	갯수	%
1	0.6:1	3	14.3
2	0.7:1	4	19
3	0.8:1	1	4.8
4	0.9:1	3	14.3
5	1.0:1	7	33.3
6	1.1:1	2	9.5
7	1.2:1	1	4.8
합계	—	21	100

표11. 군곡리식토기 최대경위치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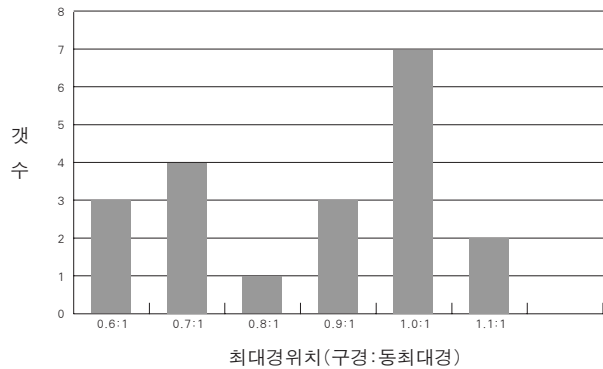


그림9. 군곡리식토기 최대경위치 분포도

3) 勒島式土器와의 比較

늑도식토기 외반구연호는 군곡리와 달리 구연부가 다소 외반되어지는 기형이 출토하고 있으나 최대경이 주로 동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최대경은 동체중앙부나 동중앙부 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순번	높이(cm)	갯수	%
1	20미만	1	14.3
2	20~30	5	71.4
3	31이상	1	14.3
합계	----	7	100

표12. 늑도식토기 높이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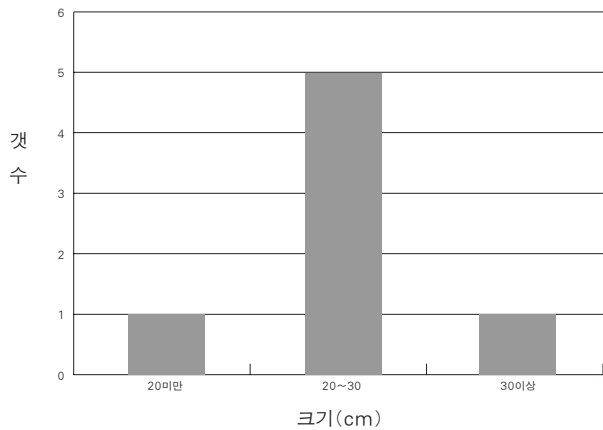


그림10. 늑도식토기 높이 분포도

표12·13과 그림10·11에서 보면 20~30cm 정도의 높이가 많고 최대경의 위치가 다양한 비율로 제작된 토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늑도식토기는 대체로 군곡리패총과 비슷한 제작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토기의 높이 빈도수에서는 군곡리패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괘지리식토기

와 비교해 보면 괄지리식토기에서는 0.7:1이하의 비율로 제작된 토기가 1점도 없는 점을 볼 때 괄지리식토기와는 물론이거니와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늑도식토기는 높이가 40cm 이상인 예도 있지만 대체로 20~30cm에 위치하고 있고 최대경은 동체부 중반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늑도식토기 외반구연호는 I 식 단계부터 홀구연의 외반구연호가 출토되고 있고 군곡리패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체부에서 막바로 구연부로 이어져 외반되고 있으며 외반길이가 짧은 것으로 보아 역시 괄지리식토기와는 그 계통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순번	비율	갯수	%
1	0.6:1	2	28.6
2	0.7:1	0	0
3	0.8:1	1	14.2
4	0.9:1	2	28.6
5	1.0:1	0	0
6	1.1:1	2	28.6
합계	—	7	100

표 13. 늑도식토기 최대경위치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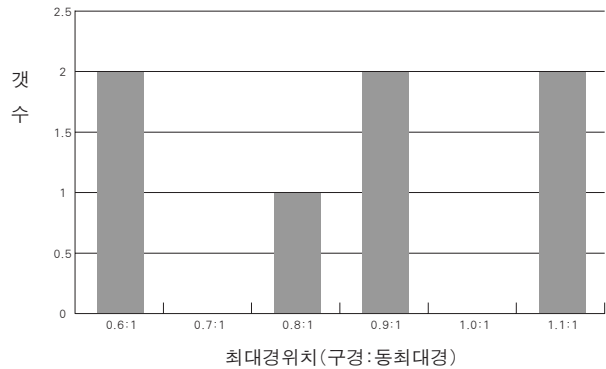


그림 11. 늑도식토기 최대경위치 분포도

2. 地域的 差異와 背景

1) 濟州島의 地理的 位置와 交流의 背景

제주도는 바다를 경계로 남해안과 마주보고 있고 반대로 남해안에서는 바다를 건너 제주도를 마주보고 있는 섬이다. 전남해안의 경우 완도를 거쳐 보길도를 지나 추자도를 경유하면 제주도에 이르게 된다. 또한 경남해안에서는 한려해상공원의 남해안 섬을 경유하여 거문도에서 바로 제주도로 오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남해안의 연안을 따라 보길도와 추자도를 경유하여 제주도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육지와 강을 따라 전남해안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해상이동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남해안이 제주도로 통하는 최적의 통로인 섬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해안지방에서 제주도로 향해하기 위한 통로로서 전남해안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제주도에서 남해안으로 향하시에도 마찬가지로의 향로를 택했을 것이다.

한편 남해안에서 완도를 거쳐 추자도를 경유하여 직선항해를 할 경우에는 용담동과 괄지리등의 제주도

서북부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광지패층 5지구에서 군곡리식 경질찰문토기가 동반 출토되는 것을 보면 양 지역간의 상관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늑도유적에서 제주도의 적갈색경질토기가 확인되고 있어서 늑도와 제주도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항해에 의한 교류만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남해안과 마주보고 있는 제주도의 북부지역인 광지~종달 사이의 구간에서 유적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이유도 이러한 항해의 기착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추정이 가능한 것은 조난선의 한국연안 표류기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제도과 대마도간 그리고 해남 보길도와 제주도간의 최단거리가 각각 30마일과 35마일로 비슷하며 또한 표류기간도 3일로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²⁰⁾. 제주도에서 45~54마일에 위치한 완도 보길도와 거문도가 시인거리안에 있다는 것도 제주와 남해안간의 교류가 빈번했을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증거이다.

한편 중부지방은 한강유역과 그 지류를 따라 유적이 분포되어 있어 남해안과는 다른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중부지방의 경우에도 서해안의 연안을 따라 해상이동을 하거나 혹은 동해안을 따라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전남해안을 거쳐야만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에서 남한강을 따라 남하한 후에 낙동강과 남강을 따라 내려와서 섬진강과 영산강의 자락을 거쳐 전남해안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해상이동을 통해 제주도에 다다르는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중부지방은 한강유역에서 내륙과 강을 따라 전남해안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전남해안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경로를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赤褐色硬質土器의 地域的 差異

제주도는 남해안과 가장 근접해 있지만 철기시대 적갈색경질토기는 남해안지방과의 유사성을 찾기가 힘들다. 이와같은 사실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철기시대에 접어들면 각각의 지역간에 다양한 토기의 형식과 지역성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광지리식토기는 삼양동식토기에서 계기적으로 변화한 것임을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부지방의 중도식토기와 함께 점토대토기에서 계기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군곡리식토기와는 그 발생과 변화과정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도식토기는 송국리형주거지를 기본으로 하는 송국리형토기의 분포권과 달리하고 있고 주로 한강유역과 동해안유역에서 확인되는 몸자형과凸자형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송국리형토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늑도-군곡리식토기는 남해안을 분포권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을 경계로 하여 자연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남해안의 바다가 자연적인 방어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장이

20) 鄭鎭述, 1990, 「韓國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碩士論文 : 51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인 방어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지역으로 제주도만의 독특한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군곡리패총에서는 층서적으로 선후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층서적 관계를 보면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에서 점차적으로 점토대가 퇴화되고 소멸되는 과정속에서 외반구연호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제주 삼양동유적에서 외반구연호의 출현은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와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즉 삼양동유적에서는 이미 외반구연호가 출현하는 단계에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와 동반하고 있으며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제주도에서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계속적으로 육지부에서 유입되어야 할 것이며 그 유입량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유입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일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기의 제작은 제주산 적갈색경질토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¹⁾.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의 외반구연화하는 기원을 찾았다면 오히려 영암 장천리 7호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사성이 보여진다. 장천리유적은 송국리형주거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양동유적과 동일하며 삼양동 I 구역 1·6호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와 여러 가지 속성에서 유사성이 보이고 있다.

한편 I 구역 2호주거지에서 II 형식의 적갈색경질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의 기형은 기존의 직립구연무문토기에서 변화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즉 기존의 심발형 무문토기의 기형에 I 구역 1·6호주거지에서 출토된 I 형식 토기의 외반구연화 현상이 혼합된 형식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삼양동에서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배경에는 말기 송국리형토기가 기존의 무문토기인 직립구연토기와 결합하여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로 이행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점은 삼양동유적이 주거형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송국리형주거지를 채택하고 있고 출토되는 유물상에서도 송국리유형의 석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어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빈도수를 보면 점토대토기 보다 기존의 무문토기와 II 형식 적갈색경질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는 삼양동유적에서 이미 그 조형이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송국리형토기의 말기형이 I·II 형식으로 변화하고 제주도 자체내의 계기적인 변천과정을 거쳐 IV형식의 완성형인 광지리식토기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결국 중도식토기를 바탕으로 하는 중부지방과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변화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군곡리늑도식토기의 남해안 지역, 그리고 광지리식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는 그 지리적인 여건과 입지에서 달리하고 있으며 적갈색경질토기의 기원과 계통 역시 달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기원전 1세

21)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제주산 태토로 제작된 토기가 일부 확인되나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제주산태토로 제작된 토기가 흔하지 않다. 이러한 예는 제주도의 여러유적에서 출토되는 원형의 점토대토기는 육지산태토와 제주산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한 토기가 모두 확인된다. 하지만 단면 삼각형점토대토기는 대부분 제주산 태토는 확인되지 않고 육지산 태토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고 하겠다.

기경의 남한 지방은 크게 중부지방과 남해안지역 그리고 제주도가 서로 다른 맥락속에서 다양한 지역색을 띠는 토기의 발생과 성행, 소멸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와 적갈색경질토기의 지역성은 결국 각 지역의 주체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의 문헌사료와 고고학적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토기상의 지역적인 차이는 결국 삼한과 탐라국등의 주체세력과 관련된 배경속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집단 사이에는 서로 역학적인 관계속에서 일정한 영역과 분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각의 독특한 토기의 형식을 유지해 나가면서 지역마다의 강한 지역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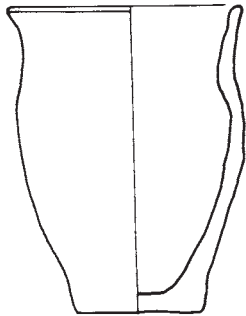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에 대한 검토결과 삼양동식토기의 변화과정을 거쳐 광지리식토기가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되는 I·II 형식이 광지리식토기에 선행하는 형식이고 III 형식 단계에서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는 그 변천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I·II 형식이 출현하는 1단계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2단계는 III 형식이 존재하는 시기로 기원후 2~3세기경 삼양동유적과 광지패총 5지구에서 동시에 공존하는 것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적갈색경질토기의 완성형인 IV 형식이 주로 출토되는 3단계는 광지리식토기가 해당되는데 기원후 3~4세기로 살펴보았고 4단계는 광지패총 7지구 2期層에서 출토된 말기형으로 기원후 4세기대 이후로 추정하였다.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는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며 동최대경이 동체부 상단에 형성되어 있으나 중도식토기는 대부분 최대경이 동체부에 형성되어 있고 동최대경이 동체 중앙부에 형성되어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늑도-군곡리식토기는 단면 삼각형점태토기에서 계기적으로 변화된 토기로 그 계통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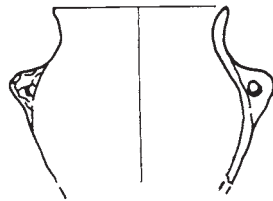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의 기원은 기존의 무문토기 제작 전통위에 송국리형토기 말기형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살펴보았다. 즉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의 출현은 한 지역에서의 단순한 전파와 이주등의 영향에 따른 계통에서 찾되 보다는 기존의 무문토기의 전통속에서 남해안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등 다양한 맥락과 배경속에서 그 계통을 찾아야 할 것이며 제주도 자체의 계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결과로서 제주도식 적갈색경질토기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대 및 단계	구분	외반구연호		파수부토기	인별형토기	대부발	기타	주요유적	비고
		형식	(심)발형토기						
BC 100 AD I	1단계							삼양동유적 종달리패총	삼양동식토기
		I · II 형식							
100 200	2단계							삼양동유적 종달리패총	
		III 형식							
300	3단계							종달리패총 곽지패총 5지구 금성패총 용담동분묘	곽지리식토기
		IV 형식							
400	4단계							곽지패총 5지구 금성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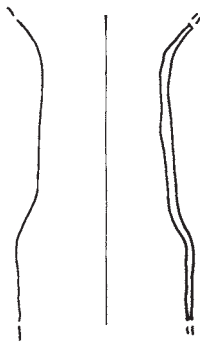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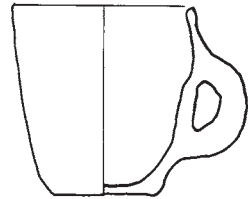
그림 12.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단계별 분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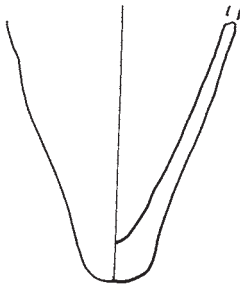
외반구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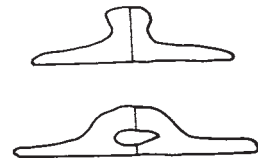
외수부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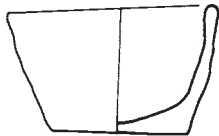
원통형토기



원뿔형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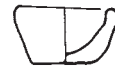
뚜껑



발형토기



대부발



소형토기

그림13.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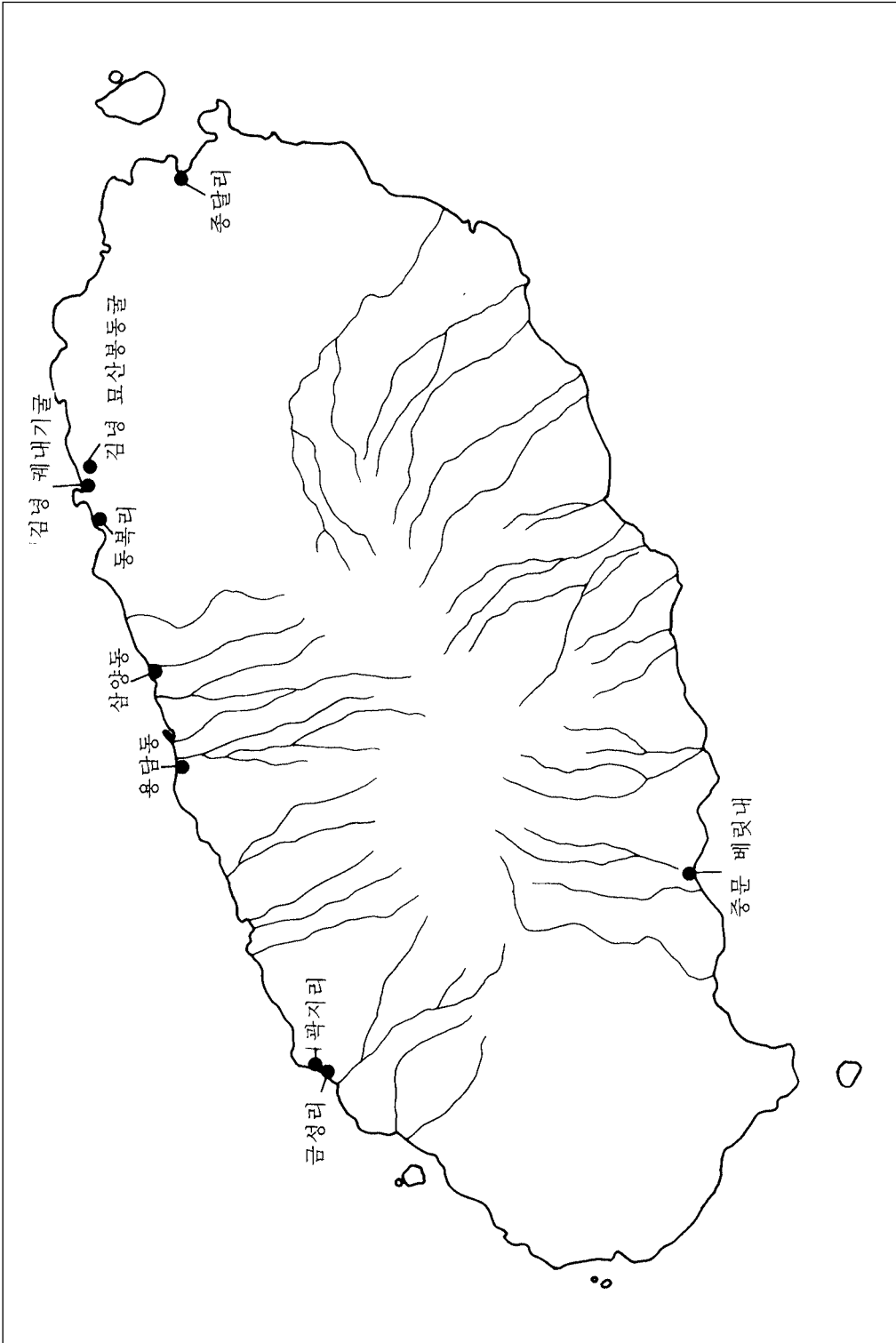


그림 14.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유적 분포도(주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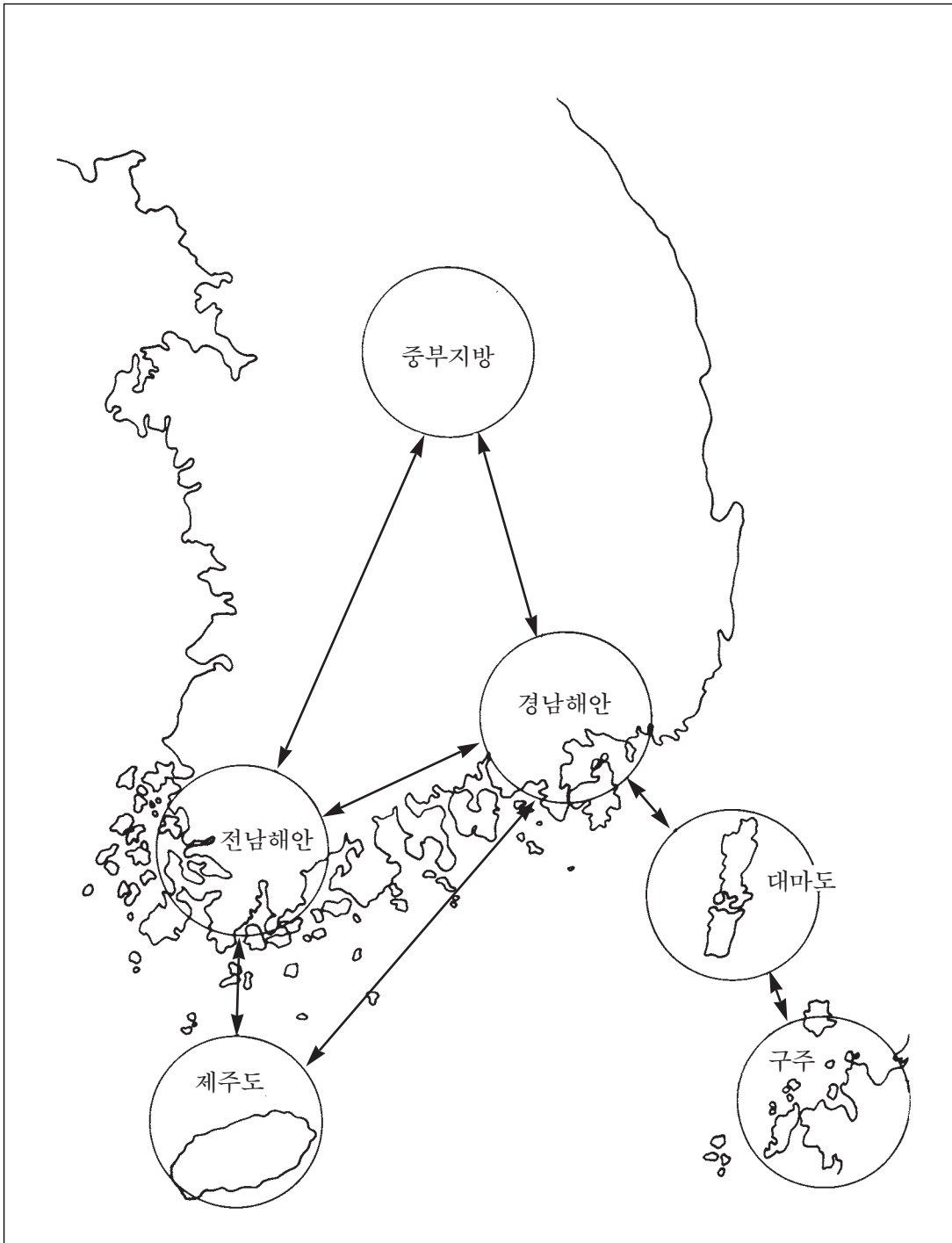


그림 15. 제주도의 지리적위치 및 교류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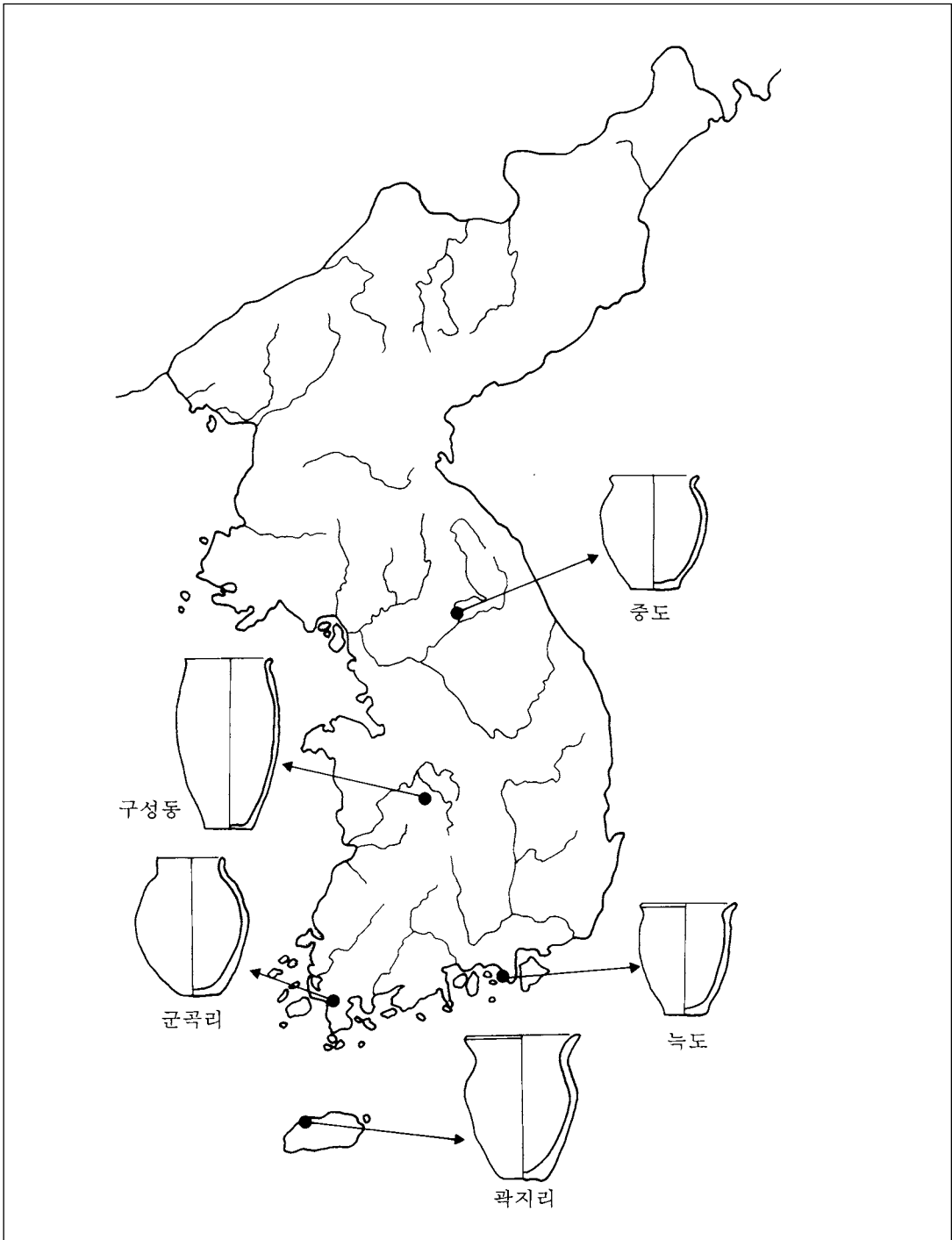


그림 16. 적갈색경질토기의 지역별 특징

An Archaeological Study on Reddish Brown Hard Pottery Of Jeju Island

Kim, Kyoung-Ju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stylistic change of reddish brown pottery excavated in Jeju Island of iron age by analyzing 157 pieces of pottery with an outward mouth. By comparing them with Jungdo Style pottery in the middle of Korean Peninsular, and Gungok-ri and Neokdo Style pottery in the southern coastal area, it also examine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reddish brown hard pottery with an outward mouth.

According to the place of the largest diameter, the reddish brown hard pottery in Jeju Island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The largest diameter of I and II types is placed on the body of pottery; III and IV types on the outward mouth of the pottery. The frequency of each type shows that the pottery changed from the I type to the IV type. Such a stylistic change tells the four periods. The 1st period dating around the 1st century B.C. is applicable to Samyang-dong Dwelling Site and Jongdal-ri Shell Mounds, where the I and II types(SamYang-dong Style pottery) are excavated. In the 2nd period during the 2nd and 3rd centuries A.D., the III type, which is excavated at Samyang-dong Dwelling Site and Gwakji-ri Shell Mounds, is dominant. The IV type called Gwakji-ri Style pottery is dominant in the 3rd period during 3rd and 4th centuries A.D. The last period of reddish brown hard pottery around the 4th century A.D. is applicable to Gwakji-ri Shell Mounds.

Gwakji-ri Style pottery, whose largest diameter is placed on the outward mouth, represent the reddish brown hard pottery in Jeju Island of iron age. The largest diameter of Jungdo Style pottery in the middle of Korean Peninsular is placed on the body, while Gungok-ri and Neokdo Style pottery in the southern coastal area do not have any typicality on the place of the largest diameter. Based on such a regional difference among the reddish brown hard pottery and the geographical situation of Jeju Island, the reddish brown hard pottery in Jeju Island are supposed to be developed by its own tradition of plain coarse pottery making on one hand, and the contacts with Songguk-ri Style plain course pottery and pottery with clay stripes in the southern coastal area on the other hand.

{key word} reddish brown hard pottery · SamYang-dong Style pottery · Gwakji-ri Style pottery